

부산 '국제금융센터지수' 20위권 재진입

전 세계 126개 금융도시 중 29위
블록체인특구 육성 등 영향 분석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가 6년 6개월 만에 20위권에 다시 진입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0위권을 이어갔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9월 부산의 GFCI 지수는 전 세계 126개 금융도시 중 29위를 기록해 2016년 3월 이후 다시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GFCI 지수는 글로벌 싱크탱크 컨설팅 기관인 지엔 사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평가하는 지수로, 한 도시의 금융지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의 GFCI 지수는 2014년 3월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으나 2년 후인 2016년 3월 38위로 떨어졌다. 이후 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 DB

~70위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다가 6년 6개월만인 올 9월에 20위권에 다시 진입했다.

부산의 GFCI 지수는 2020년 3월 51위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6회 연속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홍콩, 상하

이, 도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금융도시의 순위가 정체 또는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부산은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올 3월에 이어 올 9월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금융도시 15개 중 10위를 유지했다.

부산의 GFCI 핀테크 지수는 전 세계 126개 금융도시 중 19위로 올 3월 23위보다 4계단 상승했다. 부산시가 BIFC 3단계 개발과 해외 금융기관 지속 유치, 블록체인특구 내 핀테크 산업 육성,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을 통한 해외 마케팅 등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산업은행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기구를 부산에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

부산 국제금융평가 세계 20위권 진입

부산금융이 국제금융도시 평가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했다.

부산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32회)에서 128개 국제금융도시 중 29위로 상반기(31회) 대비 1계단 상승했으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은 2015년(17·18회) 2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2017년 9월 까지 끝없이 하락하며 70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9위 까지 올라섰다.

GFCI 평가는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인 Z/Yen그룹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국제금융 경쟁력 순위를 결정한다. 글로벌 금융도시인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샌프란시스코가 나란히 1-5위 차지했으며 서울은 상반기 대비 1계단 상승한 11위에 랭크됐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부산이 19위(서울 14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인프라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및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호재와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지난 7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서 3개의 국내외 금융기관 통합 입주식을 개최했고, 불독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금융 클러스터 집적화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 등이 고려됐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코스피지수	2,220.94	↓ -69.06
코스닥지수	692.37	↓ -36.99
환율(원/달러)	1,431.30	↑ +22.00
금리(국고채 3년, %)	4.548	↑ +0.349



부산 금융경쟁력 '업' 세계 20위권 재진입

금융중심지 부산이 전 세계 128개 금융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금융경쟁력 평가에서 29위를 기록해 7년 만에 2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지난 3월 30위에서 9월 29위로 한 단계 상승, 20위권에 다시 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지앤이 매년 3월과 9월 126개 글로벌 금융도시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지수다.

부산시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는 지난 2015년 24위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다가 2020년 하반기 40위, 2021년 상반기 36위, 2021년 하반기 33위, 2022년 상반기 30위, 2022년 하반기 29위 등으로 다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제무역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부산이 2020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20위권에 진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추세는 중앙·지방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과 부산시 2030월드엑스포 유치 추진,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에 따른 부산 핀테크 부문 상승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부산 국제금융도시 평가 7년 만에 20위권 재진입

송고시간 | 2022-09-26 08:37

| 2015년 24위 이후 처음..."지역균형발전, 2030엑스포 추진 등 영향"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이 국제금융도시 평가에서 한 계단 올라 7년 만에 2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순위가 올해 3월 30위에서 9월 29위로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Z/Yen(지엔)사가 매년 3월과 9월 126개 글로벌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지수로, 세계 금융전문가들이 평가 대상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부산은 2015년 9월 24위를 기록한 이후 2017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9위까지 올라왔다.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등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위에서도 부산은 상위 10위의 국제금융도시로서 지위를 유지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부산의 상승세는 중앙·지방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추진,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핀테크·블록체인 산업 지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6 08:37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